

2024년 9월호(제 237호)

소중한사람들

가을강

사람과 삶에
지쳐 있는 마음
조금씩 식히라고
천천히 흐른다.

친구의 서러운 이야기
이웃의 가슴 시린 아픔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나 오늘 여기 있으니
모두 소중한 이야기가 된다.

작은 이슬방울처럼 부서진다.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의 지난날들

가장 향긋한 빛깔로
우리 몸들어가자.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어머니에게 혼난 날

“리트릿 센터에 오셨던 분들에게 소식지를 보내고 있나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소식지를 만드는 데도, 보내는 데도 비용이 들기에 오직 받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 보내 드리는 것은 ... 너무 비용이 들지 않나요...?”
“이 목사님! 소식지를 리트릿 센터에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꼭 보내세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소식지 봉투를 하나하나 직접 붙이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서울에 갔을 때 어떤 날은 소식지 붙이는 날과 인접한 날이어서 그런지 토요일에 다 하지 못한 소식지 붙이는 일을 홀로 하고 계시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입을 중얼거리며 봉투를 붙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 나는 소식지 하나 하나 붙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기억하게 하소서.”

소중한 사람들 사역은 무료 사역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기억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이 사역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봉투 하나하나를 붙이면서 각 후원자들의 이름을 보며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오셨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과거에 앤드류 서라는 청년을 위해 구명 운동에 동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서는 미국에 이민 간 이민자의 비극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건너간 앤드류 서의 가족에 비극이 붙어 닥친 것은 암이라는 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살았습니다. 앤드류의 누나 캐서린은 엄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 오두베인과 입을 맞추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어머니를 본인이 죽여놓고 동생 앤드류에게 자기 남자친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 달라고 충을 건네줍니다.

“앤드류야. 내가 오두베인을 데려올 테니 이 충으로 원수를 갚아 줘야 한다. 오두베인이 누나도 죽이려고 해.”

글 / 이성일 목사

아직 청소년이었던 앤드류는 누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살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오두베인을 만난 순간 충으로 쏘게 됩니다. 캐서린은 앤드류에게 빠른 시간 안에 형무소에서 빼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고 앤드류가 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만든 것입니다.

앤드류는 백인 주류 사회의 한 청년을 죽인 아시아인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앤드류는 100년을 선고받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도 앤드류를 구명하기 위하여 힘을 많이 썼습니다. 앤드류 스스로도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 형무소에서 노동한 대가로 받는 돈이 생기면 우표를 사서 미국 전역의 변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에게 영치금 좀 넣어 달라는 편지를 받으면 사실 답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도소라는 편지 봉투만 보아도 내용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앤드류는 편지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기도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오지만, 이어지는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기 위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앤드류 서는 감옥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아, 2024년 1월 26일, 30년 만에 출옥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가 출옥하던 날, 시카고 선한 사마리아 선교 단체와 그의 변호사로부터 두 장의 사진이 어머니의 카톡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치 자신의 아들이 출옥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이끌어 올 때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이 강한 어머니는 아들 목사가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그 간절함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격앙돼서 저에게 소식지를 모든 리트릿 센터에 방문했던 성도들에게도 보내며, 봉투를 붙이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놀랐다는 기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 아무개 님 헌금한 것을 보았나요?”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하자. 나무라시듯 말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들을 출력해서 한 분 한 분 기도 하셔야지요.”

어머니는 우리 환우들의 이름 모두와 병명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환우들의 명단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웬만한 후원자들의 이름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늘 수기로 헌금을 접수한 것을 기록하시고 또 기록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그 간절함으로 사역해 오셨기에 소중한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혼줄이 나고 배웁니다.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쉼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 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쉼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리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사용시 비용은 무료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운영을 위해 3층 채플실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의 운영은 많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이 들어갑니다. 헌금은 개인의 자발적 마음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서울역에서 드린 것은 서울역 쉼터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소중한 맘 사역도 소중한사람들 사역중 하나입니다.’

내가 베푼 선(善)이 선(善)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느 날 하교하고 온 둘째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친구 OO는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아,
나는 먼저 인사하고 아는척했는데 말이야"
어린이집에서부터 친구였던 OO 이는 저희 아이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되면서 서로 다른 반이 되었고, 그 친구와 같은 반이 아니라고 많이 슬퍼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친구인데 학교 들어간지 얼마나 되었다고 인사도 안 받고 모른 척을 한다니 거절감을 느꼈을 아이가 저
도 참으로 속상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었고 그 가족에게 어려움의 소식이 있을 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생각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매번 밥을 사고 도움도 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네?'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나에게 다시 선하게 돌아온다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하고 행복할 것입
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혹은 아이가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이에
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가 인사해도 받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그 친구보다 그럼에도 먼저 인사하고 아는 척 한 너를 하나님은 축복
하시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더 좋은 친구를 붙여주실 거라 엄마는 믿어"
"내가 작은 마음을 베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 상을 잃지 않게 하
실거야"
내가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마 10:42) 말씀하셨
어요.
세상은 말할 거예요. 하나 도움도 안 되는 일에 왜 그리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을 쓰냐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손이 행한 선을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잠 27:3)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나로 인해 한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글/박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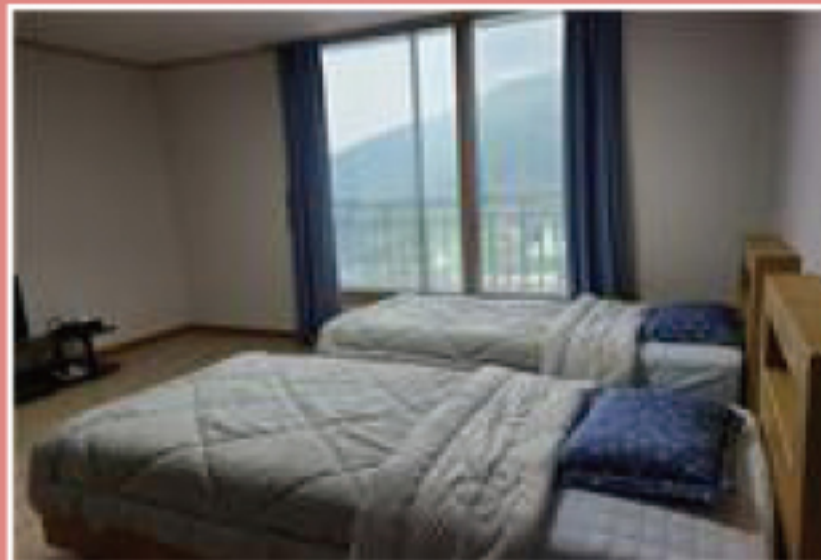
Retreat Center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가 제 2 Phase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를 열었습니다.

말씀과 자연, 침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템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침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침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라*현(5일간)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와서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 환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좋았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 불꽃없고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나귀 새끼가 꼭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말씀처럼 '나는 쓸데없고 연약해도 내 위에 예수님만 타시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만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환우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사역 가운데 유정옥 사모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스림 깨닫게 되었고 고민하던 문제에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 김*림(6일간)

항암과 부작용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전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좋은 공기와 물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씩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지쳐있고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스림 예배가 회복됨에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저녁에 유정옥 사모님께서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때 막혀 있었고 열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 깊은 곳에 터치가 되었고 마음처럼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바라보면서 내려놓지 못하던 상처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였고 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모셔드리며, 일상으로 복귀해서도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3. 임*규(6일간)

2023년 7월에 복막 육종암 진단을 받고 몇 달간의 항암 치료 중에 전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종암에 맞는 항암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이 낙심되어 있던 제가 소중한 사람들 리트릿 센터에 와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이*희(6일간)

리트릿 센터에 입소한 첫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스꺼움에 무척 당혹스러웠는데, 밥 냄새를 맡으니 울렁거려서 식사를 이틀하고 반나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와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 역사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환우들이 챙겨주는 사랑과 해모임을 먹고 조금씩 좋아졌고 물을 마시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픈 환우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팠고 저는 가벼운 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데 숙소가 좋은 환경으로 포근하고 잠도 잘 와서 감탄하고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 더 많은 환우들이 울수 있도록 확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 박*숙(5일간)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정옥 사모님 간증을 들었고 친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이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어서 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환우들을 위한 좋은 물, 음식, 환경조건, 원적와선 등 모든 스케줄이 은혜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가 세워지게 된 것이 유정옥 사모님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이 땅을 구입하시고 30년 동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면서 30년 동안 묵어 두신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성일 목사님이 국민학생이었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결실로 세워진 이곳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6. 김*미(6일간)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느껴지는 깨끗한 공기가 피부까지 스며드는 느낌에 내 몸이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주일 예배 외에는 맘껏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속상했는데, 매일 두 번 드리는 예배와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울려했습니다. 한 끼의 음식도 대충 차리지 않으시고 청결한 조리실 환경에서 건강한 재료로 면역력이 약한 환우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특식으로 나온 홍어와 월남쌈! 국산만 고집하며 비싼 가격에도 환우들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목사님! 솔직히 남편보다 낫습니다. 같은 상황 중에 있는 환우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유익했고 고통 중에도 미소를 띠며 가족처럼 정들어 버려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7. 김*영(6일간)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도착해서 보니 마음도 편안하고 호텔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다고 느껴질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지 못할 상황에서 인도하셔서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좋은 공기와 맛있는 음식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되어 건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를 통해서 많은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되기를 중보기도자로 어디에서든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 김*식(6일간)

저는 23년 아산병원에서 헤징암과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표적항암치료는 효과가 없었고 방사선 치료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흐르문 주사와 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리트릿 센터에 입소하게 되었고 두 번의 예배와 중보기도로 암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 조*옥(6일간)

유정옥 사모님 간증을 듣고 오게 된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힘찬 찬양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다니 나는 정말 복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8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헌금●
 강정운(20,000) 김연자(500,000) 김영래(1,500,000) 단선화(100,000) 이유경(1,000,000) 정경희(1,000,000) 최명자(50,000)
 하미애(1,000,000) 허태영(1,000,000) 현금(500,000)

●목적헌금●
 조은래(6,600,452)

●천사헌금●
 김연진(1,000,000) 박영자(1,000,000) 양복순(1,000,000) 유정희(1,000,000) 한명희(1,000,000)

●십일조●
 김병식(200,000) 박용범(460,000) 박정숙(500,000) 배운경(60,000) 변영미(200,000) 변영미(300,000) 서금자(50,000)
 성혜숙(200,000) 심운화(260,000) 심태영(100,000) 유에스터(500,000) 유정희(110,000) 윤철숙(1,200,000) 이상일(300,000)
 이운주(100,000) 장은미(62,000) 조용실(200,000) 조흥제(279,936) 최영자(130,000) 최은희(200,000) 추연국(170,000)

●감사헌금●
 강희석(20,000) 고정형(10,000) 곽효정(490,000) 구민정(20,000) 구현주(200,000) 권오성(250,000) 권철성(100,000)
 김경자(350,000) 김귀임(2,000,000) 김덕용(100,000) 김명석(50,000) 김미성(20,000) 김병식(1,000,000) 김보영(50,000)
 김보영(100,000) 김사라(50,000) 김선아(50,000) 김수진(400,000) 김연자(250,000) 김영관(100,000) 김운숙(100,000)
 김은숙(20,000) 김종수(60,000) 김태희(100,000) 김혜림, 김운재(100,000) 김혜영(50,000) 김혜은(20,000) 김혜정(20,000)
 김혜정(100,000) 류병완(100,000) 류성문, 김혜선(300,000) 류지숙(250,000) 류지숙(750,000) 문병숙(20,000) 박경철(50,000)
 박광숙(100,000) 박봉희(100,000) 박선인(129,242) 박정숙(140,000) 박지우(10,000) 박춘이(70,000) 박춘자(710,000)
 방윤순(50,000) 배운경(500,000) 백현미(20,000) 변영미(50,000) 서강일(100,000) 서금자(390,000) 서미순(550,000)
 소한태(10,000) 손경자(350,000) 손선희(10,000) 손을선(100,000) 송기승(30,000) 심운화(20,000) 안미영(50,000)
 양경임(50,000) 연영희(10,000) 염애석(10,000) 예배감사(50,000) 오종섭(50,000) 오종섭, 김양순(250,000) 유운철(300,000)
 유재기(50,000) 유정옥(370,000) 유정희(670,000) 유철우(100,000) 유행숙(350,000) 이경애(250,000) 이관호(350,000)
 이명승(30,000) 이명자(200,000) 이복희(30,000) 이부자(30,000) 이상길(20,000) 이신애(200,000) 이양복(10,000)
 이유경(100,000) 이운경(100,000) 이운주(30,000) 이성일(400,000) 이운주(160,000) 이은미(5,000) 이은주(150,000)
 이재희(1,300,000) 이정호(30,000) 이해형(200,000) 이현복(50,000) 이해숙(480,000) 이해숙(350,000) 이황희(437,000)
 임경남(10,000) 임동규(500,000) 임진희(1,000,000) 장은미(260,000) 전대진(50,000) 전성수(250,000) 전운유(50,000)
 정경희(500,000) 정경희(900,000) 정동익(30,000) 정신애(300,000) 정재운(170,000) 정중순(300,000) 조경숙(50,000)
 조옥실(100,000) 조정덕(100,000) 주일헌금(30,000) 주현정(100,000) 채성애(200,000) 최경순(100,000) 최성희(90,000)
 최영자(120,000) 최운정(200,000) 최은선(100,000) 최은숙(20,000) 최혜령(250,000) 최희복(100,000) 추희정(50,000)
 하미애(250,000) 한창식(400,000) 허성인(600,000) 허정순(300,000) 현성원(50,000) 홍미경(300,000) 황명자(100,000)
 황보순(100,000) 황서영(100,000) 황우진(80,000) 황철순(50,000) 황철순(100,000)

●기관후원헌금●
 가락저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취)토탈이앤씨(100,000)

●CMS헌금●
 Ahn Anna(100,000) 강영숙(20,000) 공은영(30,000) 김귀옥(30,000) 김명화(3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영신(30,000) 김운집(30,000) 김인열(20,000) 김진영(10,000) 김태희(2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나지용(15,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옥자(20,000) 문희순(10,000) 민현정(10,000) 박경미(20,000)
 박상준(30,000) 박성환(50,000) 박완준(50,000) 박혜영(20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손미경(50,000) 송연숙(50,000) 양운정(100,000) 오금단(20,000) 오연화(30,000) 유미형(10,000) 윤상득(50,000)
 윤인초(10,000) 윤희숙(3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성림(100,000) 이승은(30,000)
 이원인(150,000) 이운섭(50,000) 이은숙(10,000) 이정자(5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해경(50,000) 임동규(2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정경희(10,000) 정마선(50,000) 정예은(5,000) 정은경(20,000) 정의영(3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진성권(5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하정민(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홍금주(10,000) 황지훈(100,000)

청평힐링센터 2024년 8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6,600,452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995,252
천사헌금	5,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1,471,530
십일조	5,581,936	식자재구입비	13,700,146
감사헌금	27,319,242	전기요금	3,996,190
CMS헌금	2,635,000	가스요금	697,600
		화재보험료	1,200,000
		우편발송비	212,680
		홈페이지/ CMS사용료	165,000
		KT요금	667,780
		비품구입비(소모품)	659,980
		공사비 및 집기구입	750,500
		안전점검비	539,500
		병원대여금	5,000,000
		급여인건비	15,765,330
금월 수입 합계	47,136,630	지출 총액	46,821,488
전월 이월금	412,620		
차용금			
총 수입 합계	47,549,250	금월 잔액	727,762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 정진산, 김효선(2,000,000) 김나형(1,000,000) 김혜숙(10,000,000) 유정옥(10,000,000)
 2월 : 도주은(1,000,000) 박상준(1,000,000) 박진미(3,500,000) 이성일(10,100,000) 정일만(2,000,000)
 3월 : 강금내(1,000,000) 김명옥(1,000,000) 김연자(1,000,000) 김옥겸(2,000,000) 무명(100,000) 정현명(5,000,000)
 하지인(1,000,000)
 4월 : 박상준(1,000,000) 장미숙(500,000)
 5월 : 김계숙(1,000,000) 강정운(40,000) 김연자(1,000,000) 김태희(300,000) 장미숙(500,000) 장춘순(10,000,000)
 홍지희(200,000)
 6월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 김승만(1,000,000) 김연자(500,000) 박춘자(1,000,000) 변영미(1,000,000)
 서금자(500,000) 이운주(5,000,000) 임맹자(1,000,000) 추연국(1,000,000) 추연소(1,000,000) 추연용(1,000,000)
 7월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0) 김연자(500,000) 김태희(200,000) 도문식(500,000) 유지혜(1,000,000)
 이유경(8,000,000) 이진홍(더폼인테리)(200,000) 임맹자(1,000,000) 정경희(500,000) 현금(1,000,000)
 8월 : 강정운(20,000) 김연자(500,000) 김영래(1,500,000) 단선화(100,000) 이유경(1,000,000) 정경희(1,000,000) 최명자(50,000)
 하미애(1,000,000) 허태영(1,000,000) 현금(500,000)

* 8월말 현재 총, 108,850,000만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4년 8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이민석(10,000) 이순미(30,00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김*자(담도암 재발 자궁경부, 질, 직장전이) - 8/26일 CT촬영, 9/2일 결과 확인함
2. 장*미(유방암, 다발성 폐전이) - 항암제를 바꾸고 9차까지 진행
3. 김*식(해장암, 전립선암) - 해장암은 9/9일 25차 항암 진행하고 전립선암은 11/1일 검사 후에 진행
4. 김*진(유방암, 림프전이) - 3주마다 시행되는 항암(9/9예정)과 매일 복용하는 항호르몬제로 인한 부작용(특히 관절통, 근육통, 손발저림, 차가운들림) 최소화 되고 치료는 기대되게 하심 감사
5. 유*희(대장암, 난소, 복막전이) - 10/7일 예약되어 있는 CT검사서 좋은 결과들 소망
6. 배*경(폐암 4기) - 성형암 주사제(케메트릭스, 시스플라틴) 3주 간격으로 투여 받음. 항암 부작용(오심, 기침, 숨가쁨, 통증, 어지럼증, 무가려움, 불면증등)차유하소서
7. 이*형(폐암 4기) - 손발등 주위염, 항문 짓무름, 피부발진, 손발마비, 구내염 등의 항암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8. 서*순(유방암) - 유방암 4기 폐, 왼쪽 눈, 뇌로 전이된 상태이고 연허투로 항암을 하고 있음, 암이서말되기를
9. 김*정(폐암, 뇌전이) - 매일 먹는 표적 항암제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가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 차유되기를
10. 황*산(대장암, 간, 폐, 복막전이) - 임상치료 중단데(독성항암제 투여 후 초음파치료) 8/22일 2차 치료 후 음식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고 구토증세가 계속되고 있음
11. 박*정(난소암) - 최근 급격한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환들(어지럼증, 숨참, 염증에 따른 분비물과 요실금)이 더 심해지고 있어 힘듦
12. 류*숙(폐암 4기) - 현재 큰 부작용 없이 임상시험 진행하게 하심 감사
13. 박*자(신우암, 폐전이) - 8/19일 검사 결과양이 더 커졌다고 함. 8/27일 국립암센터에 예약이 있는데 맞는 약이 있기를
14. 허*애(유방암 다발성 폐전이) - 지속되는 부종과 통증이 암세포의 전이라서도 다시 약을 바꿨는데 약을 잘 조절해서 부작용과 통증에서 자유해지길
16. 류*문(비강암) - 폐 전이후 2번째 항암제가 내성이 생김. 9/5일 다음 항암치료를 위해 진료, 9/26일, 29일 CT, MRI 촬영 진행
17. 이*희(유방암) - 7/3일 새로 시작한 항암약 검사들 7/28일에 했고 결과들 9/11일에 듣는데, 암이서말되기를
18. 황*자(폐암) - 폐암이 뇌, 갑상선, 연파선에 전이되어 있었는데 7/24일 검사 결과 뇌에 두 개가 더 생겼고 폐에 있는 암도 자랐다고 함, 7/24일 1차 항암주사들 맞고 8/13일 2차 맞을 날인데 힘들지 않게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19. 권*성(폐암) - 9/19일 CT, 혈액검사와 뼈스캔등 종합적인 검사들 하고 10/10일 외래, 다시는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기를
20. 이*주(자궁내막암 재발) - 신장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21. 황*진(유방암, 간전이) - 9월에 예정된 유방암과 협진들 통해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22. 이*애(유방암) - CMF 약들로 바꿔서 항암함
23. 서*자(유방암 4기) - 약부작용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24. 임*규(복막종피종) - 8/5일 CT 판독 결과에서 전이된 종양이 많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항암제로 9차 더 진행하기로 함. 8/5일 갑자기 발생한 장폐색증으로 지금까지 가깝게 오는 통증 들면 함으로 정상적인 식사들 못하고 있음
25. 이*주(유방암) - 8/7일 새로운 항암제(연허투)시작
26. 이*욱(유방암, 흉선암) - 수술 후 3개월 정기검진 10/8일 CT있음. 항암 후 항호르몬제(타미라)복용후 온몸 가려움
27. 구*주(유방암) - 일년 동안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를 모두 마치게 하소서 감사
28. 김*수(다발골수종) -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데 원인을 알아 치료될수 있도록, 아밀노이드가 몸속에서 염증이 만들어지지 않고 염증이 몸 밖으로 배출 되어지도록, 심장이식후 각종 약 물의 부작용과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29. 김*라(유방암) - 작년 6월 수술하고 항암 4차 후 8/29일 검사예약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밭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의 이웃에게 오늘도 소중한 밥 한그릇, 시원한 음료 한잔 정성껏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밥만으로는 그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분들께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며 전도지를 건네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소중한사람들 교회



▲ 강동온누리교회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말복 삼계탕



▲ 무료급식전경



▲ 벨열교회



▲ 서빙고온누리교회



▲ 에클레시아



▲ 예배인도자와 노숙인의 대화



▲ 이범주 선교사



▲ 조이어스교회



▲ 중신교회청년부



▲ 학부모성경동독팀



▲ 학부모성경동독팀



▲ 함께물리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0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2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더욱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소중한사람들이 있어서 이 날들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9월에 있는 한가위에는 집에서 차리는 전, 나물, 고기, 잡채등으로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 추석을 즐길 것입니다.

8월에는 6일, 20일, 27일 이대 부속 초등학교 학부모 성경 동독반 8일 벨열교회 10일 에클레시아 13일 조이어스교회 17일 함께올래 23일 강동 온누리 교회 24일 모래내 교회 31일 중신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고순미, 김성수, 김영옥, 김현숙, 김진숙, 김현옥, 김성연, 박진희, 박은순, 송경옥, 송홍열, 양진이, 이영훈, 이소영, 이우영, 이은영, 이윤아, 유정숙, 정의영, 정성훈, 하근희, 정차현, 정경화, 최선희, 최경희, 최금련, 한현희, 하경순, 황귀용, 한에스더, 김용수, 강명석, 송기승, 허청만, 인정민, 이지영,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진승연, 정경희, 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진승연, 정종대, 송기승)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 나눔



▲ 서울역광장 간식나눔



▲ 서울역광장전도



▲ 선한목자병원 무료진료



▲ 헨스바미미용봉사

8월 노숙인들에게 나눔

*8월 10일 (토요일) 15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31일 (토요일) 23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8/2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8/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8/5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8/9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8/11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8/12	푸드뱅크	빵 부식	3박스			
8/13	푸드뱅크	만두	300개	8/15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8/16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8/1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8/19	푸드뱅크	빵 부식	3박스			
8/22	웨노아	고기	3박스	8/22~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8/23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8/25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8/26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8/27	간식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8/26	무명	쌀	1포	8/27~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8/27	사과	황규영	1박스	8/27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8/30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8/30	하나프라이	소고기	7박스	8/31~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 돼지고기주노아



▲ 무명 쌀



▲ 푸드뱅크-빵,부식



▲ 하나프라이-소고기



▲ 황규영 사과

생애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7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7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23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 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상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은우, 김정신, 김진수, 이영리, 황우진, 김연자, 황순산, 장은미, 김병식, 곽호정, 이경애, 서금자, 임동규, 김수진, 류지숙, 유정희, 이은주, 박춘자, 하미애, 배은경, 이해형, 서미순, 이혜옥, 류성문, 이재희, 구현주, 김중수, 황명자, 김사라, 이은주, 이경애, 김태은, 김재창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으셨습니다. 다시는 임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형진님이 9차까지 맞은 스펙라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펙라자 주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신형진이 다시 스펙라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앤드류 서 구명을 위해

19살에 폰티악 감옥소에 들어가 50세가 되어 출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앤드류 서는 80년을 옥중생활을 해야 하는데 30년을 모범수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모범수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앤드류 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감한 것입니다.

앤드류 서의 집과 생필품과 직장과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법천지로 변했다. 무장 정당의 폭등으로 경찰서와 은행이 불타고 도시에 흉년이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곳곳에 사신이 굴러다니고 학살이 진동하고 있다. 이 나라엔 현재 대통령이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전격 사퇴했다. 국회도 없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7일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정당은 교도소 2곳을 습격해 수천명의 범죄자를 탈옥시켰다. 국제 공행과 항공, 최소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했다. 다친 사람들이 파들 풀리며 힘겹게 병원에 걸어가다가 하면 불에 탄 자들과 타이어, 부서진 건물 잔해가 거러에 널려 있다. 하지만 폭등을 막을 경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민을 도와야 할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1월 선출된 공무원 임기가 만료돼 국회의원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은 부상당한 환자들 치료할 인력과 장비, 병상, 약품, 혈액 부족으로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혼란을 틈타 무장 정당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아리엘 앙리 총리 퇴진을 요구해 왔다. 앙리 총리는 지난해 7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말 이틀 번복하고 케냐로 출국했다. 케냐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려 한 것이다. 아이티 사회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동마을에 이어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풍갈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되약별을 몰아내 줄 힘이 어디 있는가?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들녘은 눈물겹습니니다.
울여름 땀 흘린 농부들과 비와 이슬이 하나로 조화되는 가을입니다.

울 추석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과 지인들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8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목적 헌금을 보내주신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름없이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용수 송연숙, 김영진 손미나, 이성용 이한나, 박연희 조예은,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무원, 구명신, 김가람, 김갑희, 김태희, 나은선, 노 아, 도문식, 문영숙, 박수현, 박윤희, 박인혜, 박철규, 박혜수, 송기승, 송희중, 신형진, 오동원, 유광현, 유영재, 유정숙, 유정욱, 윤원석, 이고은, 이은주, 이주희, 임나리, 임맹자, 임윤엽, 장지호, 장중숙, 정경희, 정영남, 조미영, 최진옥, 주남계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헌금을 보내주신 (사)온누리약국 복지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갑)안양감리교회, (예장) 경주제일교회, (예장)영락교회, (예장) 한강 교회 제2여전도회 베 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김용수 송연숙, 이성용 이한나, 정경희 김동균, 정종대 진승연, 유진상 황귀용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조경숙, 한종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력무력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페인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황우진, 김연자, 황순산, 장은미, 김병식, 곽효정, 이경애, 서금자, 임동규, 김수진, 류지숙, 유정희, 이윤주, 박춘자, 하미애, 배윤경, 이해형, 서미순, 이혜옥, 류성문, 이재희, 구현주, 김종수, 황명자, 김사라, 이은주, 이경애, 김태은, 김재창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본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2024년 08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4년 08월 01일 ~ 08월 31일까지)

●십일조 헌금●

고무원(200,000)	구명신(200,000)	김가람(420,000)	김갑희(400,000)	김영림(100,000)	김영진,손미나(2,9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태희(150,000)	나은선(300,000)	노아(1,000,000)	도문식(500,000)	문영숙(200,000)
박수현(200,000)	박연희,조예은(200,000)	박윤희(300,000)	박인혜(160,000)	박철규(260,000)	박혜수(500,000)
송기승(150,000)	송희종(500,000)	신형진(450,000)	오동원(200,000)	유광현(300,000)	유영재(350,000)
유정숙(100,000)	유정욱(200,000)	윤원석(200,000)	이교은(470,000)	이성웅,이한나(500,000)	이은주(1,850,000)
이주희(270,000)	임나리(600,000)	임맹자(150,000)	장종숙(100,000)	장지호(50,000)	정경희(1,200,000)
정영남(100,000)	조미영(100,000)	주님깨감사(381,000)	최진옥(200,000)		

●개인 감사헌금●

강덕희(30,000)	강성희(70,000)	강운욱(10,000)	권정연(100,000)	권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도영(20,000)	김동민(10,000)	김명옥(80,000)	김미선(50,000)
김미정(20,000)	김선아(100,000)	김성희(3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영선(50,000)
김용수,송연숙(400,000)	김종훈(10,000)	김종명(100,000)	김진환(100,000)	김태세(40,000)	김태희(8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서(20,000)	김희정(50,000)	나종숙(60,000)	노숙자후원(30,000)
노원근(30,000)	류한금(10,000)	민향숙(100,000)	박금용(100,000)	박동준(10,000)	박문희(40,000)
박세준(50,000)	박영일(100,000)	박인혜(40,000)	박재민(10,000)	박재수(15,000)	박정애(30,000)
박정욱(90,000)	박정환(20,000)	박진희(50,000)	배희영(10,000)	변경자(20,000)	석동신(4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송계순(30,000)	송기승(20,000)	신기복(50,000)	신명순(50,000)	신미애(150,000)
신현정(100,000)	심윤화(20,000)	안형욱(100,000)	양복길(13,000)	오경남(20,000)	오선향(100,000)
오선희(50,000)	오지석(100,000)	유재학(120,000)	유정숙(10,000)	유정욱(10,000)	유진상,황귀용(200,000)
윤재운(10,000)	윤화(40,000)	이강혁,이강현(30,000)	이기형(40,000)	이미일(100,000)	이상훈(10,000)
이선아(100,000)	이성웅,이한나(55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영숙(20,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용남(30,000)	이원욱(100,000)	이윤아(3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인영(50,000)	이재성(50,000)	이재욱(10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60,000)	이지은(10,000)
이태희(60,000)	이현경(20,000)	이환희(60,000)	임맹자(80,000)	임운엽(110,000)	장광욱,장자민(50,000)
장란숙(100,000)	장종숙(20,000)	전철에서(50,000)	전혜영(10,000)	정경희(150,000)	정영애(20,000)
정유진(100,000)	정윤(50,000)	정일권(70,000)	정일권(100,000)	정종대,진승연(150,000)	정주연(50,000)
정태현(10,000)	정혜영(100,000)	조민화(10,000)	조민화(10,000)	조성애(50,000)	조영미(30,000)
조을남(10,000)	조정희(20,000)	조진영(50,000)	최마진(50,000)	최성은(10,000)	최진복(20,000)
최진자(100,000)	최진자(100,000)	하영숙(30,000)	한경숙(10,000)	한보성(100,000)	한송희(100,000)
한에스더(100,000)	한창현(40,000)	홍기선(50,000)	황보혜(50,000)		

●교회 감사헌금●

(기감)번영교회(100,000) (기감)선재중앙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식도성결교회(50,000)
 (기성)아현성결교회(10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양익문교회(3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예복교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강교회제2여전도회(20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기관 감사헌금●

갯피플웨딩(50,000) 계명산업(50,000) 글로벌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50,000) 길벗여행사(100,000) 로고스스터디카페(20,000)
 마라나타(30,000) 사랑의센터(50,000) 씨엠지코리아(100,000) 연세마수학학원(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창세에스엔티(50,000)
 (주)컨퍼티크(100,000)

●미얀마고아 선교헌금●

(주)글로벌비즈니스(4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전성(40,000)	안성호(송명옥)(40,000)	유경미(40,000)	윤혜경(40,000)
이성자(40,000)	이성자(40,000)	이현희(1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조갑동(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	-------------	-------------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	-------------	-------------

●북한고아 선교헌금●

(주)글로벌비즈니스(4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	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명(5,000)	박승호(50,000)	석영란(2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아복자(100,000)	이순주(20,000)	이현희(1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주)엔피이브(100,000)	김광훈(김미영)(5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은혜(50,000)
이향자(50,000)	이향자(5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전혜봉(20,000)	지선옥(2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박진희(40,000)
-------------	-------------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갯피플웨딩(40,000) 갯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상진(손향)(40,000) 김화련(50,000) 노윤정(40,000) 박서준(100,000) 박선인(40,000)
 박선주(80,000) 새산성교회(40,000) 손향(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안서영(송명옥)(40,000)
 윤혜경(40,000) 이재력(40,000) 이찬의(40,000) 이혜란(40,000) 장요섭(손향)(40,000)
 장정문(pacific JNJ corp)(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30,000) 최춘호(8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의미해(50,000) 홍정희(4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무명(300,000)	민하은(1,000)	박영미(35,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혜영(200,000)
박혜진(10,000)	성찬영(5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강금내(3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운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전혁(10,000)	강현미(20,000)	강화관(1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수(30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민자(20,000)	김반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성하(5,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현(30,000)	김수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명상(5,000)	김명성(5,000)	김명숙(10,000)	김명숙(10,000)	김명순(10,000)	김명옥(20,000)	김명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옥겸(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정(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100,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동(30,000)	김재정(80,000)	김정숙(1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숙(50,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관택(30,000)	박다운(5,000)
박명희(10,000)	박문희(2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진(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영(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연정(10,000)	박영수(10,000)	박영자(2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 차은미(10,000)	박진철(10,000)	박찬국(3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호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규진(2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서상숙(20,000)	서정국(50,000)
서지연(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섭(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진(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송하정(10,000)	신승우(50,000)
신영주(10,000)	신용순(10,000)	신은미(3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훈(5,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예인(20,000)	여인귀(3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옹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마선(3,000)
유민아(10,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래(1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예준(10,000)	윤완(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홍찬(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선(1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미경(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상중(50,000)	이선미(20,000)	이상순(10,000)	이상자(20,000)
이성준(10,000)	이소영(3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명미(30,000)	이명석(10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유진(3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은혜(50,000)	이의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영(20,000)
이재림(박안숙)(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란(10,000)	이정민(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원(10,000)	이지훈(50,000)	이지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순(50,000)	이현주(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홍순(3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산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섭(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숙(50,000)	전혜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우찬(30,000)	정유나(5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이랑(10,000)	정인철(50,000)	정재경(5,000)	정재이(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찬(10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름(10,000)	조성림(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은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춘호(5,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경(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전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10,000)	최경선(1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이재(2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중(10,000)	최혜정(10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지영(5,000)	한진련(10,000)	함대훈(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인애(30,000)	홍성경(30,000)	홍순경(20,000)	홍순경(20,000)	홍신숙(100,000)	홍영희(5,000)	홍유희(20,000)
황지필(20,000)	황정희(20,000)	황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황희잔(2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RX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헌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input type="checkbox"/>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미 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
국
북
한